

양이라는 동물(1)

양이라는 동물의 학명은 'Ovis aries' 라고 하는데, 그 종류가 몇 천종이 되는지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분류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이 없다. 아주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게 양이 있었던 듯한데, 어떤 종류의 양이 이 땅에 살고 있었는지 지금은 흔적도 없다.

양은 온혈(溫血) 동물로서 포유류(Mammalia)에 속하며, 발굽이 둘로 갈라져 있어 유제류(有蹄類)¹⁾중에서 우제목(偶蹄目)에 속하는 동물이다. 마치 소, 돼지, 염소, 사슴, 노루, 낙타와 같은 족속이며, 반추동물로서 소나 사슴, 그리고 기린과 같은 집안이다. 말하자면 구제역에 걸릴 수 있는 친척들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것이 숫과(Bovidae: 산양, 소, 들소, 물소 등)가 되는데, 이러한 소와 같은 부류들이 세월 따라 변화하여, 소와 산양, 그리고 오늘날의 양으로 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소와 양과는 확연히 구분이 되지만, 양과 산양과는 얼른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가령 북아프리카에 서식하고 있는 바바리 양(Barbary Sheep)은 양도 아니고, 산양도 아닌 중간쯤에 있는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독립된 종류다.

(1) 양과 산양

1) 척추동물의 포유류 중에서 발끝에 각질(角質)의 발굽을 가진 동물. 대부분이 초식성(草食性)이며, 대체로 몸이 크고 어금니가 많이 발달하였다. 우제류(偶蹄類), 기제류(奇蹄類), 장비류(長鼻類), 바다소류 따위가 이에 속한다. 우제류는 발굽이 짝수인 것이고, 기제류는 발굽이 홀수인 것을 말하며, 장비류는 코끼리와 같은 코가 긴 종류를 말한다.

양과 산양을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양에게 없는 수염을 갖고 있는 것이 산양²⁾이다. 또한 양의 뿔은 머리로부터 경사지게 나 있는데 반하여 산양의 뿔은 머리에서 직각으로 나 있다는 것 외에 양의 뿔이 산양의 뿔보다도 더 굵고 굽어 있다.

양은 무리를 지어서 사는 것이 보통인데, 산양은 뿔뿔이 흩어져 서식한다. 보다 더 전문적으로 구분하면, 양에는 눈물샘이 발달해 있으나, 산양에는 이것이 없다. 또한 양에는 양 발가락 사이에 취선(臭腺, Scent Grand)이란 분비선이 발달해 있는데, 산양에는 없다.

다만 이들의 공통점이란 양이나 산양이 모두 수많은 종류로 분류된다는 것과 털이 전혀 나지 않는 종류, 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류, 젖이나 고기, 가죽이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종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은 예전부터 성격이 온화하여 무리를 지어서 서식하던 버릇이 있어 가축화가 쉬웠고, 양종의 개량에 성공하여 털이나 고기 모두 그 품질의 향상과 집단 사육이 가능하여 인간에 기여한 공헌도는 산양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2) 양의 진화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하였듯이 양의 조상은 중앙아시아에서 발생하였다고 했고, 그 조상이 아래에 제시한 4종이었다. 즉

Argali Sheep (학명 *Ovis ammon*)

Urial Sheep (학명 *Ovis laristanica and orientalis*)

2) 숫과에 속한 포유동물. 면양과 비슷하지만 속이 비고 뒤로 흰 뿔이 있으며 수컷에는 턱밑에 긴 수염이 있다. 몸빛은 갈색, 백색, 흑색 등 여러 가지이고, 성질은 활발하고 민첩한 편이다. 가축화된 품종이 많은데, 고기와 젖은 식용하며, 털은 직물로 이용한다. 학명은 *Capra hircus*이다.

Mouflon (학명 *Ovis musimon*)

Big horn (학명 *Ovis candensis*)

이 중에서 Big horn 만이 가축화되지 못하고, 현재에도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미국의 로키 산맥에서 서식하고 있다.

양이 가축화한 것은 기원전 1만년 경에 Urial 양이 먼저 가축화하고, 다음에 Argali, Mouflon이 그 뒤를 이었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인류의 발전과 함께 발전하여 가축을 이끌면서 이동하는 방법이 시작되었다.

양 자체도 야생 시절의 양은 털도 Kemp 상태의 거친 자모(刺毛)와 부드러운 면모(緬毛)가 뒤섞인 모습이었고, 그 털도 매년 봄이 되면 빠져버리던 그런 것이었다. 또한 턱 아래나 가슴 부분은 부드러운 털로 덮여 있었고, 등이나 엉덩이 부분의 털은 비바람에 노출되어 비교적 거친 털이었으며, 털의 색상도 검정색, 갈색, 회색, 백색의 털이 섞여 있었다. 그 털도 몸의 윗부분은 진하고, 배 쪽으로 내려 갈수록 색상이 희게 되는 그런 상태였고, 양에 따라서는 복부만 백색인 것도 있었다. 또한 뿔은 필요 없이 크기만 하였고, 꼬리는 굵고 짧았다. 다만 Mouflon의 암컷에는 뿔이 없는 것도 있었다. ♣ (공석봉)



<Barbary Sheep>



<Mouflon>